

04/25/2021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 8:5]

1부 중보기도 : 행정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엘리사벳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1. 할렐루야!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보혈의 능력과 기름부으심이 넘치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영적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주일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주일에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동시에 죄 된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4.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재현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 팬데믹 기간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쉼모임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6.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 6:9]

1.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2.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시 22:3).
3.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5.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정태호목사님, 권상욱목사님, 송종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박한진장로님, 김명기장로님, 김섭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러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1.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2.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과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3.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을 미리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좋은 심령의 받아 되어 떨어지는 말씀마다 100 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4.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비전이 선포되고 묵인 것들이 풀어지며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받아 말씀의 권능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5.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차 일천번제 기도: (2021년 4월 19일~2024년 1월 13일)

1. 매일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 2. 일천번제 기도제목 쓰기(헌금봉투) / 3. 헌금작정 / 4. 새벽 예배 적극 참석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예수그리스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의 강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미래를 위해 기도로 저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지는 영적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4.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로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5. 주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의 모습으로 구체화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고후9:6]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고후9:7).
2.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하게 하옵소서(고후8:5).
3.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주일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일천번제를 통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3차일천번제,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시사철 푸른 감람 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옵시고,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복음적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다음세대가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2.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부모들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성령충만하게 감당하여 다음세대를 언약의 세대로 일으키게 하옵소서.
3. 대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교육부, 성경적 성교육을 실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zoom 이용한 성경공부반도 열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간병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 주시고,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뉘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또한 나눔과 돌봄이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속히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제단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2.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3. 성령님을 힘입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옵시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사역지를 세우며 제자훈련 및 선교교회로서 쓰임 받게 하옵소서.
4.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선교 재부흥의 새 길을 열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5. 열방에 흠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할 때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도시와 마을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 00 선교사님(타지스탄) 제자양육 / 400 여명의 주일학교 학생 양육을 위해 / 농지개간/남쪽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 • 남 00 선교사님(인도) 외국인 거주허가증을 위해/비자를 위한 서류 준비가 형통하도록/ 사역에 대한 구체적 응답/ 신학생들을 위해 • 정 00 선교사님(파키스탄) 전도 컨퍼런스를 위해/ 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자립선교를 위해 	<p>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 사태 진정과 인권 유린 및 살상을 그치지도록 • 고난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 김인수 선교사님(필리핀) 건축 중인 교회의 완공/영적부흥/ 산속 원주민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생활/ 사역의 필요와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사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 암에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훈 3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혜영 선교사님(T 국) 왼쪽 영치뼈로 전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목에 있는 물혹이 제거 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한국에서의 치료가 잘 맞도록 • 정 00 선교사님 (인도) 비중격 만곡증(코 연골 문제) 고침 받도록



1. 평등법(H.R.5, Equality Acts)이라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저지되게 하옵소서. 이 법안은 2월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연방상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남가주 평등법 저지운동 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님)'는 저지 운동의 불길을 남가주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미국 전국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를 창설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아틀란타와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 이후, 인종 문제와 총기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두려움과 갈등이 더욱 부추겨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지혜를 더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친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의 사람들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를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4. 교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 **2021 국가 기도의 날 "미주 한인교회,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2021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6일(목) 오후 7시부터 LA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진행된다.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세에 있어 이날 기도회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뿐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도회는 실내 정원의 50%인 3천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기도회를 주관하는 미주성서회운동본부는 미국 각 지역 한인기독교교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미 전역의 모든 한인교회가 국가 기도의 날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하원, 대통령의 입국자 제한 권한 금지 법안 통과시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이 다수인 5개국에 대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에 대한 무효화 입법이다.
- **미 시민권자 한국 방문, 오는 9월 부터 ETA 발급 필수**: ETA 제도는 외국인(미 시민권 제외동포 포함)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 **향소법원 “의료진이 신앙 양심에 따라 성전환 수술 거부할 수 있다” 판결**
- **‘4개월간 1천명 이상 세례’ 미 테네시 교회 목사 “평생 처음”**

월
방

- 한국, 지난해 군부대 세례자 3만여 명...코로나로 74% 감소
- 이집트, ISIS에 성도 피살... 전세계 교회에 기도 부탁
- 미얀마 기독교인들, 쿠데타 이후 정글로 숨어들어
- 미얀마, 체포된 시민들 심한 고문... 기독교인 부모 눈물로 기도
- 북한, 국제기구 파견 직원까지 철수... “인도적 지원 공급 차단 우려”
-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 “팬데믹의 최악의 시점... 이동 자제 강력 호소”
- 인도네시아 발리 해역서 훈련 중인 잠수함 실종... 53명 탑승
- 한국, 국민 10명 중 7명 “조세부담 증가해 버겁다”



‘3차 일천번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일천번제 감사 특별 부흥성회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 만에 성전에서 부흥회에 참여해서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고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2차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새롭게 은혜받기 위한 특별성회로 준비하였습니다. 박순애전도사님을 강사로 초청할 때는 펜데믹 이전이기에 현장에배 드리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현장 부흥회가 열린 것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회였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간 펜데믹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고 믿음으로 3차 일천번제 기도를 해야겠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집회를 준비한 보람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집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3차 일천번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는 주제로 기도의 대장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면서 기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천번제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청교도 신앙 회복과 미전도 종족지역에 7천개 센타 교회를 세워가며, 세계선교에 총력을 다하며, 교회 모든 Loan도 다 갚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랑 되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일천번제 기도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펜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육이 회복되고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성도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담임 목사 드림

‘참으로 중요한 순종의 원리 하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참다운 순종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종의 원리 하나는 참다운 순종자는 순종자로서의 자신만 생각하지 위임권위자로서의 자신은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다운 순종자는 어디를 가든지 위임권위를 찾아 순종할 줄 압니다. 당신이 순종할 위임 권위자를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려는 성도는 성경말씀대로 넘어지게 될 것이며 (눅 17:1-2) 더 이상 배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다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직접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접해 본 사람만이 참다운 순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3)

천국을 소유한자는 천국 가는 Visa 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귀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 가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 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직접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닷을 예수님에게만 던진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자연히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운 위임권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다운 성도는 위임권위자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순종자로서의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임권위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각기 위임권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위임권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위임권위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 첫째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위임 권위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당신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임을 언제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거역할 때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고 얼굴을 지면에 대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 둘째로 참다운 위임권위자는 자신의 권위를 쓰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위임권위자가 영적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위임권위자가 영적권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첫째가 겸손이요(벧전 5:6) , 둘째가 사랑이요, 셋째가 진실인 것입니다.
- 셋째로 참다운 위임권위자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위임권위자는 직접권위이신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임권위자의 참다운 의무는 직접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인데 위임권위자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를 통하여 직접권위이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의 뜻은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죽고,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입니다.(마 16:24)
- 넷째로 올바른 위임권위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주님과 접촉을 지속시켜야만 합니다. 올바른 위임권위자가 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은 이스라엘 영도자인 모세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임권위자인 당신이 끊임없이 직접권위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필요 불가결한 조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다운 위임권위자와 참다운 순종자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나는 기도하리라



일러스트=노주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삼상 2:10~11) 원래 한나는 기도하던 여자였다. 기도 밖에는 할 줄 몰랐다.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었다. 즐거울 때도 기도했을 한나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고 있다. 왜?

‘기도의 여인’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육적인 여자, 대적 브닌나가 기도하는 영의 여인 한나를 조롱하고 공격한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영의 사람에게 이 말처럼 듣기 힘든 조롱의 말은 없다. 한나는 자책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게 부끄러운 것이 있나.’ 그렇지만 한나가 의지할 곳은 주님 밖에 없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좋지만, 복음은 너무 놀랍지만 진짜 어렵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며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포기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복음으로 한번 제대로 목회 좀 해보겠다고 결심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어느새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갔다. 기도하고 기도했다.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괴로웠다. 괴로워서 통곡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가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고통이 오면 더욱 기도했다. 고통이 더할수록 더 기도했다. 대단한 용기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일까?

젓먹이 아이는 엄마 품 떠나면 죽는 줄 안다. 그 아이는 밤새 울 능력이 있다. 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서도 아니다. 엄마 떨어지면 죽으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사니까 우는 것이다. 누가 끝까지 때달리는 줄 아는가? 대단히 잘나고, 의지 충만하고,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너무너무 약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손길 놓치면 못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복음 편에 서서, 기도의 그 자리에 남아서 때달린다.

기도의 삼중적 약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금 구절이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이 말씀은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 미션 대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한복음 14:14

